

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
신성한 교통 안에 살고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함

성경: 요일1:2-3, 6-7, 빌2:1, 고후13:13, 롬8:4, 6, 갈5:16, 25

I.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의 실재이다.

- A. 교통이란 신성한 생명을 영접하고 소유한 모든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다—요일1:3, 참조 계22:1.
- B. 우리는 신성한 영, 성령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—고후13:13, 딤후4:22.
 - 1.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가리킨다—요일1:3, 6.
 - 2. 이러한 교통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어떠한 심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. 즉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성령의 교통에 의해 누리는 것이다—고후13:13.
- C.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해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—빌2:1, 계1:10.
 - 1.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우리들 서로 간의 교통을 가리킨다—요일1:2-3, 7.
 - 2.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참된 교통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. 참된 교통은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이다—참조 엡4:29-30, 고후6:6.
- D. 하나의 신성한 교통은 교직된 교통—수직적인 교통이 수평적인 교통과 교직된—이다.
 - 1. 사도들의 처음 체험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통이었지만 사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했다—요일1:2-3, 참조 행2:42.
 - 2. 성도들과 우리의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와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. 그 후 우리의 주님과와의 수직적 교통은 우리를 성도들과와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다.
 - 3. 우리는 건강하고 영적이기 위하여 반드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을 유지해야 한다—참조 요일1:7, 9.
 - 4. 우리가 주님과와의 합당한 교통을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와 같은 믿는 이들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와 같은 믿는 이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교통을 갖기가 어렵다.
- E. 교통이란 공동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다. 따라서, 신성한 교통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—1:3.
- F.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이다.
 - 1.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도 사라진다. 하나님은 교통으로서 오신다—참조 계22:1.
 - 2. 이러한 신성한 교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직 되신다. 이러한 교직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—참조 레2:4-5, 고전10:17.
 - 3.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교정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틀 속에 넣고 재조성하여 신성한 조성 성분을 우리의 영적인 존재 안으로 가져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게 한다.
 - 4. 신성한 교통은 우리를 쉬고, 고르게 하고, 조절하고, 조화되게 하고, 한 몸으로

함께 연합되게 한다—12:24-25.

II.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—롬8:4.

- A. 신성한 영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며, 이 두 영은 한 영—연합된 영—으로 함께 연합된다—16절, 고전6:17.
- B.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몸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는데, 이는 몸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이다—엡1:17, 2:22, 3:5, 16, 4:23, 5:18, 6:18, 4:4, 참조 롬8:16.
- C.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어떠한(2:29, 8:5-6, 9), 우리가 가진 모든 것(10, 16절), 우리가 하는 모든 것(1:9, 7:6, 8:4, 13, 12:11)이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.
 - 1. 모든 영적인 것들의 실재는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—요14:17, 롬8:16.
 - 2. 우리의 영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다—10절.
 - 3.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—6절.
- D.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표는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열망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다—2:15.
 - 1. 영적인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나 혼적인 생명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영, 즉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신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—2절-3:3.
 - 2. 그러한 사람은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, 다스림 받고, 지시 받고, 움직이며, 인도 받는다—롬8:4, 참조 16:18.
- E.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영 안에 산 사람의 본인 사도 바울을 본다—참조 딤후 1:16.
 - 1.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—고후 2:10, 4:16.
 - 2. 우리는 바깥 환경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해야 한다—2:12-14.
 - 3.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—4:13.
- F.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야 한다—갈5:16, 25.
 - 1.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위한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—빌1:21.
 - 2.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—고전14:3-5, 엡4:12.